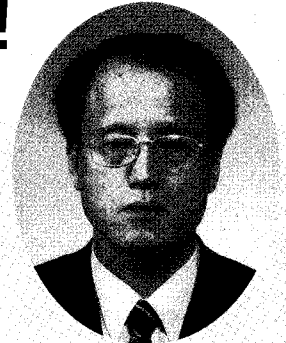


폐기물(廢棄物)을 폐귀물(陞貴物)로 !

우리 세대의 물질적인 풍요를 다음 세대에까지 이어져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분별하게 일회용품을 많이 쓰는 등 낭비적이고 방만한 생활 양식을 지양하고 쓰레기가 좀 더 적게 나오는, 그리고 발생된 쓰레기는 좀 더 많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생활습관, 이러한 경제체제, 사회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새천년 환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부여된 작은 사명이라 생각한다.



고재영 환경부 폐기물자원국장

언젠가 평생을 고지(古紙) 재활용업에 종사한 분과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길에 지폐(紙幣)와 종이가 떨어져 있다면 이 중에서 어느 것을 주을 것이냐고 물으면 지금도 주저없이 종이를 줬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상식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폐를 줬겠지만 이분의 이야기는 그만큼 자원을 귀중히 여긴다는 뜻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하루 전국에서 나오는 생활 쓰레기는 4만7천 톤으로 이것은 8톤 트럭 6만 대 분에 달하는 엄청난 양이다. 물론 이러한 결과는 그동안 쓰레기 종량제, 재활용품 분리수거, 폐기물 예치금·부담금 등 여러 제도에 적극 협조해 준 국민들의 노력 덕분에 이룬 것이라 생각되며 이러한 수치는 선진국에 비해서도 결코 낮은 재활용률이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아직까지 재활용 기술이 낙후되어 있고 업계가 영세하며, 재활용 제품에 대한 인식이 나쁘다는 문제점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가 국토 면적이 좁고 자원이 빈약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자원 낭비를 막고 폐기물의 재활용을 더욱 촉진시키기 위한 보다 발전적인 재활용 제도의 도입, 운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최근 OECD에서는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재활용을 높이기 위하여 <확대된 생산자 책임>(Extend Producer Responsibility)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즉 생산자가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뿐 만 아니라 소비 후 폐기되는 제품의 처리까지도 담당하는 것이다. 생산자는 제품의 재질 및 구조를 변경할 수 있고 포장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제품의 유통 경로를 통하여 폐기물을 역회수(逆

회收)할 수 있다. 더구나 폐기물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품 가격에 전가(轉嫁)시킬 수 있는 등 폐기물 관리에 있어서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생산자에게 폐기물 처리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비용, 경제적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 제도가 폐기물 처리의 모든 책임을 생산자에게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폐기물 흐름(Waste Stream)의 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생산자, 소비자, 정부간 책임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이 과정에서 생산자의 역할을 과거보다 확대하여 제품 가격에 폐기물 처리 비용을 내부화(內部化)하는 것을 의미한다. 회수·처리 비용이 내부화되면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이 용이한 구조와 재질의 제품을 만들며 효율적인 폐기물 회수 체계를 구축한 생산자가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세대의 물질적인 풍요를 다음 세대에까지 이어져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분별하게 일회용품을 많이 쓰는 등 낭비적이고 방만한 생활 양식을 지양하고 쓰레기가 좀 더 적게 나오는, 그리고 발생된 쓰레기는 좀 더 많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생활습관, 이러한 경제체제, 사회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새천년 환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부여된 작은 사명이라 생각한다.

끝으로 스티로폴 재활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사)한국발포스티렌재활용협회 및 회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스티로폴 재활용과 환경 보전에 적극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 ☺